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2010. 6.

I. 머리말	1
II. 공공기관 해외직접투자 추이	2
1. 개요	2
2. 기관 유형별 추이	4
III. 주요 특징	5
1. 업종별 특징	5
2. 지역별 특징	8
3. 기타	10
IV. 결론 및 시사점	11

산업투자조사실 해외투자분석반

작성자	책임조사역 김유신 (6667)
확인자	반 장 김종호 (6664)

I. 머리말

- 최근 공공기관의 해외 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해외 직접투자 동향 및 주요 특징 등에 관해 분석코자 함.
-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297개 기관을 분석 대상으로 함.¹⁾
 - 단, 연기금의 해외직접투자는 별도의 기금 계정을 통하고, 주로 금융기관을 수탁자로 하는 형태를 띄고 있어 정확한 통계 분석에 어려움이 있는 바,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
 - 한편, 동 법률 상 공공기관은 직원수, 자산규모,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중 등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아래와 같음.

【 공공기관 유형 분류】

유형	기관수	기준
공기업	24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시장형	6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
준시장형	8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준정부기관	80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이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기금관리형	16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64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93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1) 분석 편의를 위해 '09년 지정 공공기관을 대상('09년 297개→'10년 286개)으로 하며, 실제 분석대상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있는 19개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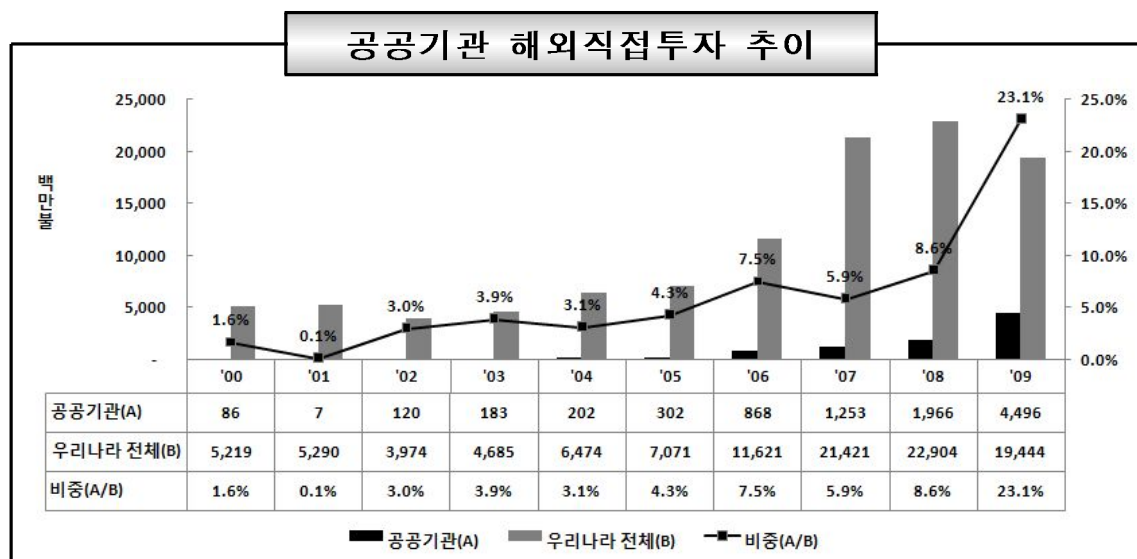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 이용되는 통계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통계를 활용

- 분석 대상 기간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이하의 '누적 기준'은 동기간을 의미)이고, 투자금액은 송금(실행) 기준이며, 지점과 지사를 제외²⁾한 현지법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II. 공공기관 해외직접투자 추이

1. 개요

-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2001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누적 기준 94.8억불을 기록하여 동 기간 우리나라 해외투자금액 1,081.0억불의 8.8%를 차지
- 2000년 이후 공공기관 투자금액은 연평균 55.2%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연평균 증가율 15.7%를 크게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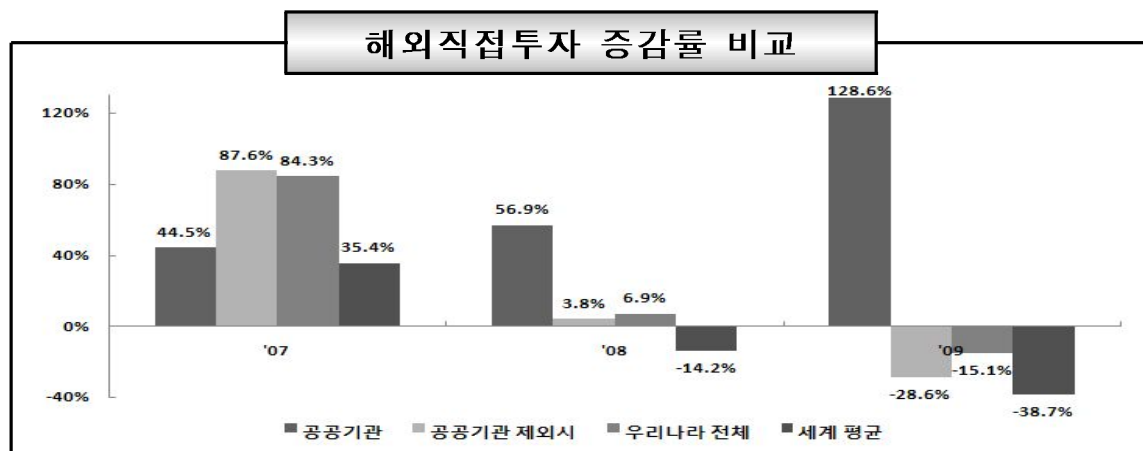


- 2009년에는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가 45.0억불로 크게 증가(전년대비 128.6%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연간 해외투자금액의 23.1%까지 투자 비중이 상승

2) 해외직접투자통계는 통상 지점, 지사를 제외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도 지점, 지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현지 법인 투자금액의 3.0% 수준으로 미미

□ 공공기관의 투자 증가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2009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15.1% 감소에 그쳐 세계 평균대비 감소폭이 낮은 편

- UNCTAD(Inward 기준)에 따르면 전세계 해외직접투자는 금융 위기 영향으로 2008년 1,697십억불, 2009년 1,040십억불(전년대비 각각 14.2%, 38.7% 감소)로 2년 연속 감소세 기록
- 다만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투자금액을 제외할 경우, 2009년 감소율이 28.6% 수준이어서 민간 부문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음.



□ 국민연금은 최근 해외부동산 취득을 통해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09년 투자금액은 18.4억불 규모로 추정

- 국민연금의 2009년 투자금액은 우리나라 전체 투자금액의 9.5%에 달하며, 이를 공공기관에 포함할 경우 공공기관의 투자비중은 32.6%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 감소율은 37.4%로 세계 평균 감소율에 근접함.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 매입 현황>

시 기	지 역	대 상	금 액	조 건
'09. 7월	일본 도쿄	KDX Toyosu 그랜드스퀘어	4,600억원	칼라일과 공동매입 (국민연금 지분율 49%)
'09. 1월	영국 런던	88 우드 스트리트, 40 그로스버너 플레이스	각각 1800억원, 1700억원	지분율은 각각 50%, 100%
'09. 11월	영국 런던	HSBC 타워	1조 5000억원	지분율 100%, 17년6개월 동안 HSBC에 재임대
'10. 1월	호주 시드니	오로라 플레이스	7,500억원	지분율 100%
'10. 2월	영국 런던	개트워 공항	1,800억원	지분 12%
'10. 4월	독일 베를린	소니 센터	8,500억원	투자 협상 중

자료 : 국민연금공단, 보도자료 등

2. 기관 유형별 추이

□ 공공기관의 유형별 투자 비중은 누적 기준으로 공기업이 95.3%(시장형 공기업 87.2%, 준시장형 공기업 8.1%)를 차지하며 공공기관의 해외직접 투자를 주도

- 공기업은 외형 및 자체 수입 규모가 커 투자채원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고, 특히 원유·가스·광물·전력 등을 취급하는 석유공사, 한국 전력 등의 경우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 투자가 활성화

<기관 유형별 투자 동향>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누계
시장형 공기업	86.0	68	228	170.0	131.7	238.6	821.4	968.4	1,688.6	4,137.9	8,272.3
준시장형 공기업	-	-	1.3	5.9	7.8	19.8	45.9	195.0	210.4	279.6	765.7
기타 공공기관	-	-	95.9	6.7	46.0	43.9	0.3	71.8	66.7	77.6	408.9
기금관리형 기관	-	-	-	-	16.0	-	-	17.9	-	-	33.9
위탁집행형 기관	-	-	-	-	-	-	-	0.3	0.5	0.4	1.2
계	86.0	68	1199	182.6	201.5	302.3	867.6	1,253.4	1,966.2	4,495.6	9,482.0

- 이어 중부발전 등 발전 자회사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 금융 기관이 속한 기타 공공기관이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 기관³⁾은 각각 0.4%, 0.01%에 그침.

□ 한편 해외직접투자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은 총 297개 중 6.4%에 해당하는 19개 기관에 불과

- 이중 1개 기관의 투자금액이 공공기관 전체 투자금액의 70.9%를, 5개 기관(자회사 포함)이 99.2%를 차지하는 등 소수의 공공기관이 해외직접 투자를 주도하고 있음.

3) 국민연금공단 등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나, 전술한 바와 같이 분석대상에서 제외

Ⅲ. 주요 특징

1. 업종별 특징

□ 업종별로는 광업이 누적 투자액 기준으로 공공기관 투자액의 8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9년에는 91.5%에 해당하는 41.1억불을 기록

○ 이는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자주개발을 제고를 위해 자원 개발 공기업의 대형화·전문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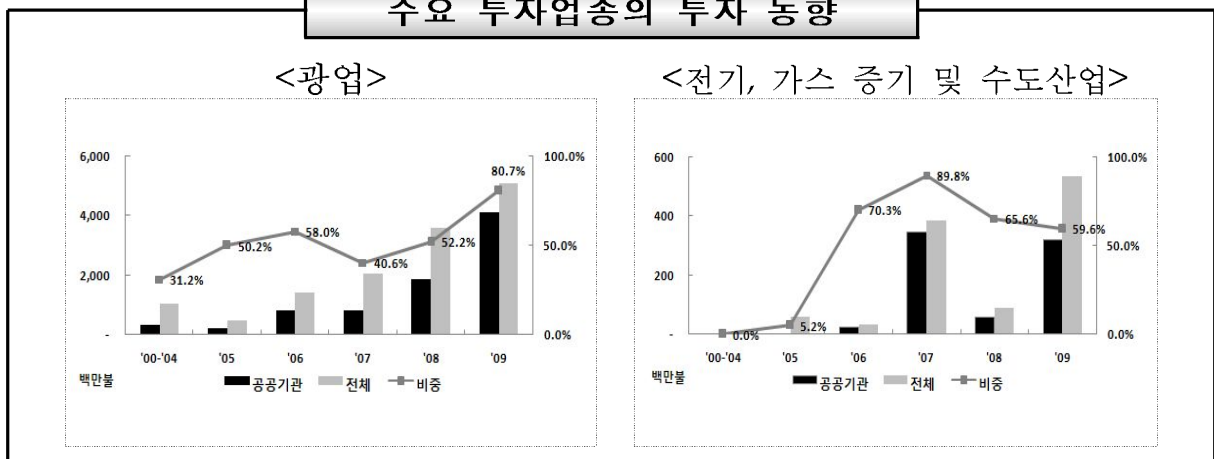
<업종별 투자 동향>

(백만불)

업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누계
광업	4.8	6.8	14.6	170.0	136.1	240.7	829.1	832.5	1,872.8	4,114.8	8,222.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	-	-	-	3.2	24.6	346.9	58.3	319.3	752.3
금융 및 보험업	-	-	95.9	6.7	62.0	43.8	-	69.9	-	-	278.2
제조업	81.2	-	9.5	5.9	3.4	14.6	13.6	-	-	39.5	167.7
건설업	-	-	-	-	-	-	-	3.8	34.6	15.0	53.5
기타	-	-	-	-	-	-	0.3	0.3	0.5	7.0	8.1

□ 이어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광업⁴⁾ 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⁵⁾의 경우 해당 업종 우리나라 해외투자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

주요 투자업종의 투자 동향



4)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채취·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광업 지원 서비스업을 포함

5) 전력의 발전 및 송·배전사업, 연료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사업, 증기, 온수, 냉수, 냉방공기의 생산·공급사업, 상수도 및 산업용수의 집수·정수 및 공급사업을 포함

□ 제조업, 건설업 등 기타 업종의 경우도 대부분이 석유 정제 설비, 발전소 건설, 발전기 제조 등 광업과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과 연관된 부문에 대한 투자

- 민간 부문을 보조하는 공공기관 업무 성격 상 제조업, 도소매업 등의 해외진출 활성화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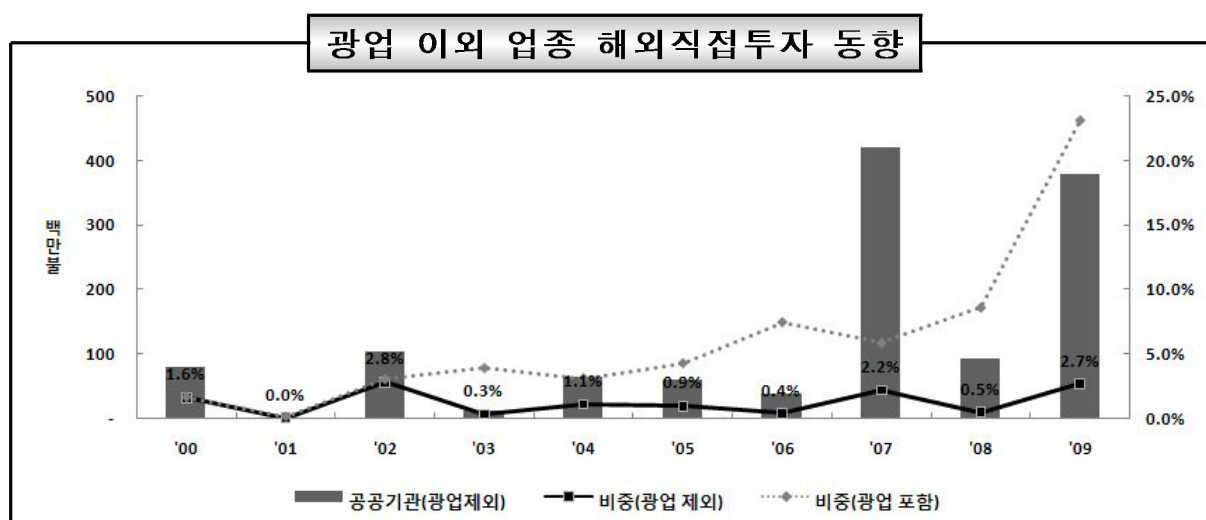
<우리나라 업종별 투자현황과의 비교>

(백만불)

지역	공공기관(A)			우리나라 전체(B)			공공기관비중 (A/B)
		비중	순위		비중	순위	
광업	8,222.2	86.7%	1	13,708.3	12.7%	3	60.0%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752.3	7.9%	2	1,108.6	1.0%	11	67.9%
금융및보험업	278.2	2.9%	3	7,570.8	7.0%	6	3.7%
제조업	167.7	1.8%	4	41,809.4	38.7%	1	0.4%
건설업	53.5	0.6%	5	3,179.9	2.9%	7	1.7%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9	0.04%	6	8,687.1	8.0%	5	0.0%
운수업	3.9	0.04%	7	1,928.0	1.8%	9	0.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정보서비스업	0.3	0.003%	8	2,471.9	2.3%	8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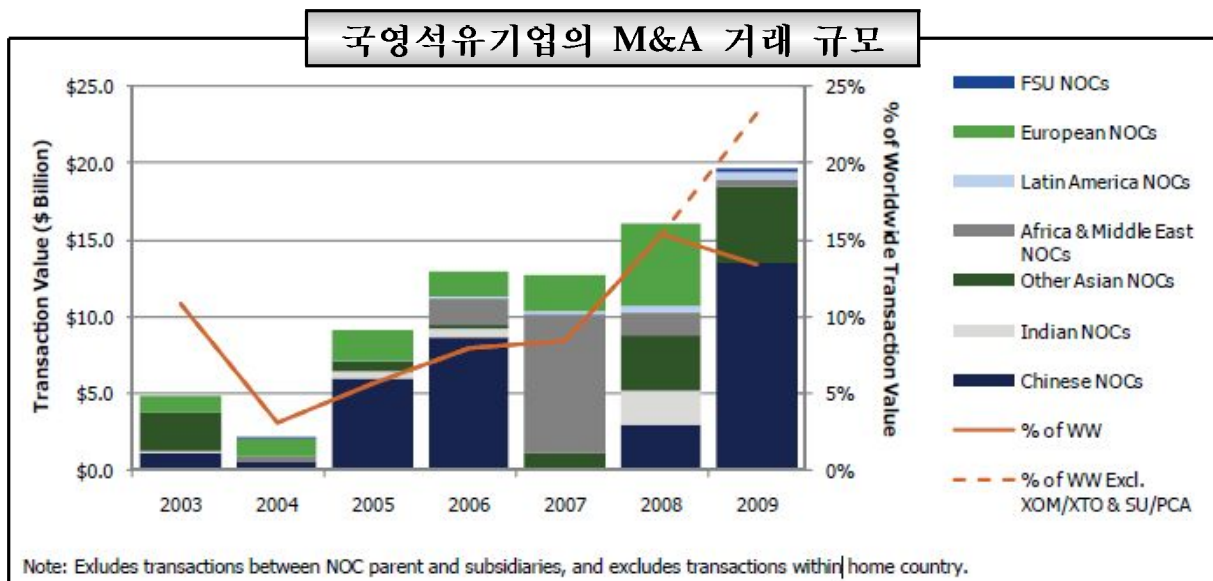
주 : 누적 기준

- 광업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 투자금액 중 공공기관 투자 비중은 누적 기준으로 1.3%이며, 투자가 급증한 2009년에도 2.7%에 불과해 광업 이외 업종의 해외직접투자는 미미한 수준



□ 세계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⁶⁾의 경우에도 '09년 세계 M&A 거래 상위 10건 중 4건⁷⁾을 국영석유회사(National Oil Company: NOC)가 차지하는 등 그 영향력이 크게 확대

- 낮은 자본비용, 자국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해당국가 정부의 외교적 지원 등을 통한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대형 M&A 거래를 주도하며 2009년중 역대 최고치인 200억불⁸⁾ 투자를 기록함.
- 특히 중국 국영석유기업의 의한 인수규모는 2009년 세계 전체 금액⁹⁾의 10% 이상을, 북미외 거래금액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이전 최고치인 2006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한 규모임.
- 우리나라 국영석유기업인 한국석유공사(KNOC)도 2009년 총 3건의 대형 M&A 거래(페루 Petro-tech, 캐나다 Harvest Energy, 카자흐스탄 Sumbe)를 성사시키며 거래규모에서 글로벌 5위¹⁰⁾로 부상함.



자료 : IHS Herold

6) 석유·가스산업은 크게 ①유전 탐사·개발·생산 ②원유 수송 ③원유 정제 ④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의 탐사·개발·생산 부문을 업스트림(Upstream)이라고 하는 바, 통상적으로 자원개발, 광업과 유사 개념

7) 중국 Sinopec, CNPC, 한국석유공사, 러시아 Gazprom

8)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를 포함하며, 자국 내 M&A 거래를 포함하면 총 350억불

9) '09년 전체 거래금액은 1,463억불

10) 거래금액 49.3억불로 미국 ExxonMobil, 캐나다 Sunkor Energy, 중국 Sinopec, 러시아 Gazprom사에 이어 5위

2. 지역별 특징

- 2000년 이후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은 북미가 44.2%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1.0%, 유럽 12.4% 순

<지역별 투자 현황>

(백만불)

지역명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누계
북미	-	-	-	-	3.4	3.5	280.5	55.7	1,001.5	2,849.8	4,194.4
아시아	81.2	-	16.2	145.6	105.1	133.0	205.2	635.7	346.9	325.3	1,994.1
유럽	-	-	89.2	-	16.0	0.0	35.4	91.2	157.3	787.2	1,176.3
아프리카	4.0	4.6	11.1	22.0	28.0	71.8	183.5	185.6	131.4	253.1	895.1
중남미	0.4	0.2	0.1	13.1	42.4	83.9	154.6	207.7	175.2	40.8	718.5
대양주	-	-	1.3	1.7	6.5	9.0	8.1	77.2	129.7	147.8	381.2
중동	0.3	2.0	2.1	0.3	-	1.1	0.3	0.4	24.2	91.8	122.4

- 우리나라 전체 지역별 투자 현황과 비교하면, 광업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가 증가한 북미의 투자 비중이 높고, 제조업 투자 비중이 높은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우리나라 전체 투자 비중이 낮은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투자금액은 적으나, 공공기관의 투자 비중이 각각 57.4%, 15.1%, 11.1%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우리나라 지역별 투자현황과의 비교>

(백만불)

지 역	공공기관(A)		우리나라 전체(B)		공공기관비중 (A/B)
		비중		비중	
북 미	4,194.4	44.2%	24,505.3	22.7%	17.1%
아시아	1,994.1	21.0%	50,507.8	46.7%	3.9%
유 럽	1,176.3	12.4%	18,749.1	17.3%	6.3%
중남미	895.1	9.4%	1,558.3	1.4%	57.4%
대양주	718.5	7.6%	9,160.3	8.5%	7.8%
아프리카	381.2	4.0%	2,520.1	2.3%	15.1%
중 동	122.4	1.3%	1,102.2	1.0%	11.1%
합 계	9,482.0	1.0	108,103.1	100.0%	8.8%

주 : 누적 기준

□ 북미지역은 지정학적 안정성, 시장 투명성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전세계적으로 자원 개발투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음.

-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의 2009년 북미지역 M&A 거래규모는 최근 5년來 최대치인 978억불을 기록하며 거래 비중이 67%까지 증가, 이는 광업에 집중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지역별 투자 분포와 유사한 형태

<석유·가스 업스트림 산업 M&A 거래 지역별 비중>

(십억불)

지 역	'09		'08		5년 평균('05~'09)	
		비중		비중		비중
미국	61.2	41.8%	38.3	36.6%	44.1	30.4%
캐나다	36.6	25.0%	14.5	13.9%	28.2	19.4%
유럽	5.6	3.8%	8.0	7.7%	5.6	3.9%
아프리카, 중동	13.6	9.3%	7.5	7.2%	6.8	4.7%
아태	4.8	3.3%	17.3	16.5%	6.5	4.5%
중남미	3.8	2.6%	4.0	3.8%	3.4	2.4%
구소련	20.1	13.7%	12.5	11.9%	24.9	17.2%
Multi-Region	0.8	0.6%	2.5	2.4%	25.5	17.6%

자료: IHS Herold

□ 국가별로는 총 41개국 앞 해외직접투자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위 5개 투자국은 캐나다, 미국, 베트남, 네덜란드, 홍콩

- 우리나라 전체 투자액 1위에 해당하는 중국 앞 투자 비중은 낮은 반면, 해외자원 개발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페루, 리비아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임.

<국가별 투자현황>

(백만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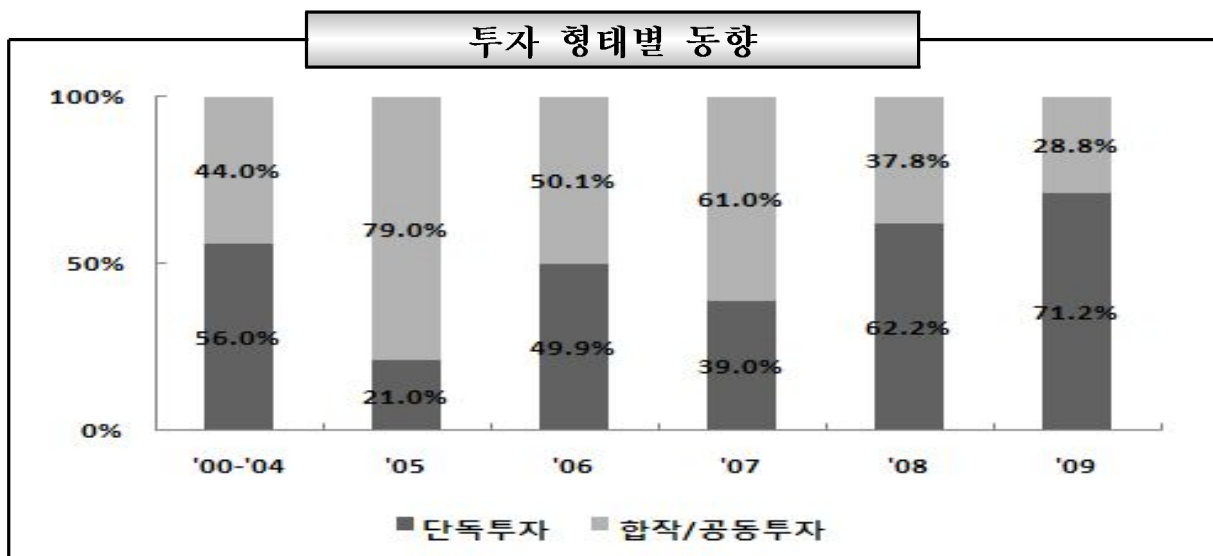
지역	공공기관(A)			우리나라 전체(B)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캐나다	2,682.6	28.3%	1	3,284.4	3.0%	6
미국	1,511.8	15.9%	2	21,220.9	19.6%	2
베트남	826.2	8.7%	3	4,772.3	4.4%	4
네덜란드	726.5	7.7%	4	4,398.1	4.1%	5
홍콩	485.3	5.1%	5	7,477.4	6.9%	3
마다가스카르	455.5	4.8%	6	561.1	0.5%	31
버뮤다	333.9	3.5%	7	2,992.5	2.8%	7
페루	290.6	3.1%	8	630.4	0.6%	29
오스트레일리아	263.1	2.8%	9	1,432.0	1.3%	16
리비아	247.1	2.6%	10	313.4	0.3%	40

주 : 누적 기준

3. 기타¹¹⁾

□ 투자 형태별로는 금융위기 이후 단독 투자 비중 증가

- 1) 금융 위기 이후 민간 기업의 투자 위축, 2) 공공기관의 해외사업경험 축적, 3) 광업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낮은 생산 광구와 기업 M&A에 대한 투자 증가 등으로 '08년부터 단독투자 비중 증가



□ 투자 방법별로는 대부투자¹²⁾가 72.4%, 증권투자가 27.6% 비중 차지

- 대부투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동일 기간 우리나라 전체 투자 (대부투자 16.6%, 증권투자 83.4%)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11) 다만, 본 통계는 투자자가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이나 지주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하고 이를 경영유하여 현지에서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

12) 투자자가 현지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형태의 투자

IV. 결론 및 시사점

- 공공기관은 공적 목적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민간 부문을 보완하는 업무 성격상 그동안 해외진출은 활발하지 못하였음.
- 금융 위기 이후 민간 기업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외직접투자가 침체되고 있는 반면, 공공기관의 투자는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음.
 - 다만, 최근 투자는 정부의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정책과 연관되어 소수 기관의 광업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추세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광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각국 국영석유기업(NOC)의 해외 자원개발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업종 및 지역 다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의 자원개발 공기업 역량 확충 방안】

구분	주요 전략	비고
석유공사	- 대형화'의 지속 추진 ▪ 日産 5~10만 배럴 규모 석유개발 기업 M&A 지속 추진 ▪ M&A 후속조치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M&A에 65억불 투자계획 (‘10년 해외석유개발 예산 4조원)
가스공사	- 석유·가스전 개발 참여 확대 ▪ 이라크 유전 입찰 참여 등 유망 석유·가스전 확보 추진 ▪ 전문인력 확충 및 석유공과의 전략적 협력 활성화	‘17년까지 자원개발 사업 등 해외 사업에 약 19조원 투자계획
광물공사	- 광물개발 전문기업화 ▪ 출자예산 확대로 자본금 확충 : (‘09) 1,107억원 → (‘10) 1,307억원 ▪ 프로젝트 확보를 위한 수요기업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10년 자원개발 직접투자 예산 : 3,507억원
한국전력	- 연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 ▪ 유연탄·우라늄 등 연료 광물의 생산광구 지분 인수 추진 ▪ ‘16년까지 발전용 유연탄 및 우라늄 수요의 40% 이상을 확보	-

자료 :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해당 기관 운영계획 등

□ 정부가 자주개발률 제고(원유·가스 자주개발률 '09년 9%→ '10년 목표 10%)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년에도 광업 투자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활기를 띠 전망**

- 중국 3대 국영석유회사(CNPC, Sinopec, CNOOC)가 금년에 자원개발 관련 M&A에 200억불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되는¹³⁾ 등 전 세계적으로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0년 자원개발 투자전망】

(억불)

구분	공기업	민간기업	계
석유·가스	75	12	87
광물	8	27	35
계	83	39	122

자료 : 지식경제부 ('09. 12월)

- 한편, 국민연금은 기금 적립금 중 해외자산 비중을 현재 9.8%(적립금 274조원)에서 '14년 20%('14년말 적립금 예상규모 약 432조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부동산 투자 이외에 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의 투자도 검토 중에 있는 등 **연기금의 해외직접투자도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기관의 해외직접투자는 공공기관 자체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해외사업 경험의 축적을 통해 민간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이 필요**

- 정책적 지원과 민관 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체계적 진출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동시에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안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음.

13) 우드매켄지(Wood Mackenzie) '2010년 석유기업 M&A 전망 보고서'

(참고자료 1)

국가,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천불)

국가명	'00-'04	'05	'06	'07	'08	'09	누계
캐나다	3,445.0	3,463.0	276,656.4	15,862.2	30,161.7	2,353,013.8	2,682,602.0
미국	-	-	3,813.6	39,846.3	971,359.0	496,781.5	1,511,800.4
베트남	100,132.7	83,079.0	141,842.3	199,413.1	187,091.5	114,620.2	826,178.7
네덜란드	24.5	16.7	18,458.8	24,957.1	51,433.6	631,611.4	726,502.0
홍콩	33,351.7	10,242.3	32,824.0	389,935.0	10,910.0	8,083.0	485,346.1
마다가스카르	-	-	26,870.9	134,355.2	86,144.4	208,158.7	455,529.2
버뮤다	679.3	20,591.0	104,547.9	148,538.5	59,533.9	18.7	333,909.3
페루	39,403.9	33,321.7	46,650.0	58,500.0	76,075.4	36,686.1	290,637.1
오스트레일리아	9,400.6	8,997.1	8,058.7	63,537.8	102,830.2	70,323.7	263,148.0
리비아	68,795.6	51,886.0	36,253.6	30,758.3	35,512.4	23,896.3	247,102.1
사이프러스	-	2.0	16,972.0	66,224.1	105,869.5	5,143.3	194,210.9
말레이시아	17,472.9	9,083.3	13,902.9	25,802.2	73,348.9	35,490.7	175,100.9
인도네시아	100,428.5	7,391.8	7,434.8	-	100.0	57,829.6	173,184.7
필리핀	90,700.0	200.0	-	1,410.0	16,507.3	33,745.6	142,562.9
나이지리아	-	-	113,909.8	20,457.9	9,703.5	6,204.6	150,275.8
프랑스	-	-	-	-	-	145,862.9	145,862.9
이라크	-	-	-	-	22,797.6	62,097.3	84,894.9
마셜군도	-	-	-	13,677.9	26,881.4	77,468.7	118,028.0
싱가포르	-	-	-	14,575.0	28,655.6	54,486.9	97,717.5
브라질	-	30,000.0	-	-	-	-	30,000.0
헝가리	89,200.0	-	-	-	-	-	89,200.0
중국	5,928.8	15,892.0	8,062.0	4,189.2	30,246.1	4,506.9	68,825.1
바레인	-	-	-	-	670.0	29,280.3	29,950.3
멕시코	-	-	-	-	39,569.0	2,364.6	41,933.6
베넌	1,002.0	19,881.1	6,515.0	-	-	-	27,398.1
아일랜드	16,000.0	-	-	-	-	-	16,000.0
영국령버진군도	16,000.0	-	-	-	-	-	16,000.0
미얀마	-	-	-	-	-	3,079.9	3,079.9
니제르	-	-	-	-	-	14,800.0	14,800.0
카자흐스탄	-	-	-	-	0.2	13,415.1	13,415.4
우즈베키스탄	-	7,150.0	1,089.9	365.5	83.3	-	8,688.7
예멘	4,645.1	1,123.0	-	-	-	-	5,768.1
러시아	-	-	-	-	-	4,540.0	4,540.0
아르헨티나	261.2	-	3,417.9	644.4	-	-	4,323.4
볼리비아	-	-	-	-	-	1,696.7	1,696.7
아랍에미리트	-	-	-	354.0	735.2	-	1,089.2
요르단	-	-	-	-	-	320.0	320.0
레비논	-	-	300.0	-	-	-	300.0
사우디아라비아	-	-	-	-	-	53.3	53.3
룩셈부르크	-	-	-	-	19.8	-	19.8
케이만군도	-	-	-	0.2	-	-	0.2
총합계	596,871.8	302,319.9	867,580.3	1,253,403.7	1,966,239.5	4,495,579.7	9,481,994.9

주무부처	시장형 공기업 (45)	준시장형 공기업 (18)	기금관리형 (16)	위탁집행형 (64)	기타공공기관(196)
기획재정부(3)		한국조폐공사(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2)
교육과학기술부(4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1)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5)	강릉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기초기술연구회,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통계기술원, 한국정보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34)
외교통상부(3)					제외의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3)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3)
국방부(3)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호국장학재단(3)
행정안전부(4)			공무원연금관리공단(1)	한국정보문화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1)
문화체육관광부(31)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2)	서울로컬라이프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3)		(재)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3)	(사)전국문예회관연합회, 정부관광개발공사,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 국민생활체육협의회,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장애인체육회,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용원, 영상물등급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명동·정동극장, 저작권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언론재단,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23)
농림수산식품부(8)	한국마사회(1)			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농어촌공사(3)	(주)농지개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4)
지식경제부(67)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2)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4)	한국수출보험공사,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방사선폐기물관리공단(3)	(재)한국석유관리원, 대한부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우편물류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수련사업지원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20)	기초전력연구원, 울산도시개발주식회사, 인천종합에너지(주), (주)강원랜드,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기술거래소,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표준협회,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한진KDN, 한진KPS(주), 한진원자력연구주식회사, 별정우체국연합회,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산업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력물자관리원, (재)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38)
방송통신위원회(4)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3)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1)
보건복지가족부(17)			국민연금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5)	국립암센터,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청소년진흥센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11)
환경부(6)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4)	수도권배립지관리공사, 친환경상품진흥원(2)
노동부(10)	한국산재의료원(1)		근로복지공단(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노사발전재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4)
국토해양부(38)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4)	대한주대공사, 대한주택보(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컨베이어부동산(9)		고용안전공단,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대한지적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안전수원(7)	코리얼개발(주), 코리얼엔지니어링(주), 코리얼유통(주), 코리얼부서서비스(주), (주)한국건설관리공사, 주택관리공단(주), 코리얼네트웍스(주), 코리얼로지스(주), 코리얼트랙(주), 코리얼전기(주), (주)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보안(주), 부산항만보안(주),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항로표지기술협회(18)
국무총리실(24)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4)
국가보훈처(3)				독립기념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2)	88관광개발(주)(1)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보호재단(1)
산림청(1)					녹색사업단(1)
중소기업청(6)			중소기업진흥공단(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1)	시장경영지원센터,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4)
특허청(2)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2)
금융위원회(18)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매도금융사(5)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2)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온캐피탈, 기온신용정보(주), 삼은자산금융주식회사, 삼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타에이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11)	한국자산신탁(주), (주)기온캐피탈, 기온신용정보(주), 삼은자산금융주식회사, 삼은캐피탈주식회사, (주)아이비케이시스템 (주)정리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타에이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11)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진흥원(2)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소비자원(1)	
경찰청(1)				도로교통공단(1)	
소방방재청(1)				한국소방산업기술원(1)	